



INCHEON UNITED SPONSOR

Premier Sponsor



Official Kit Sponsor



Official Sponsor



Official Partner



제호 THE UNITED / 발행일 2022년 10월 01일 / 등록번호 영등포,라00591

배포처 인천유나이티드 - 인천시 중구 참외전로 246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3층 / 전화 032-880-5500 / 홈페이지 www.incheonutd.com
기사 인천유나이티드 UTD기자단 / 디자인·인쇄소·발행소 더스포츠킴뮤니케이션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한국휴렛팩커드빌딩 20층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 할 수 없습니다.

하나원큐 K LEAGUE 1



OFFICIAL MAGAZINE 2022.10.01 / 제9호

2022 SEASON

2022시즌 경기일정/결과
2022시즌 선수명단

MATCH PREVIEW

'세 번의 무승부' 울산전 승부를 낼 시간
팽팽한 제주와 승점 6점짜리 경기 펼친다
'이제는 이겨야 한다' 올 시즌 포항전 첫 승 노린다

BLUEMAN INTERVIEW

돌아온 '축구 대통령' 김대중
"팬들의 응원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UTD REPORTER NEWS

인천의 2022 파이널 라운드 관전 포인트

ROOKIE INTERVIEW

데뷔골이 극장골, 2년 차 막내 공격수
김민석의 성장은 현재진행형

THE UNITED



INCHEON UNITED 2022 SQUAD

 오지우 피지컬코치 PHYSICAL COACH	 황근우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피민혁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최재혁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김민석 팀매니저/통역 TEAM MANAGER	 조용희 장비담당관 KIT MANAGER
 6 강윤구 DEFENDER	 7 김도혁 MIDFIELDER	 8 정혁 MIDFIELDER	 10 아길라르 MIDFIELDER	 11 이용재 FORWARD	 15 김대중 FORWARD
 22 김창수 DEFENDER	 23 민성준 GOALKEEPER	 24 이강현 MIDFIELDER	 25 김민석 FORWARD	 26 오반석 DEFENDER	 27 김보섭 FORWARD
 36 김대경 DEFENDER	 37 홍시후 FORWARD	 39 박현빈 MIDFIELDER	 42 황정욱 DEFENDER	 47 김동민 DEFENDER	 98 에르난데스 FORWARD

 조성환 감독 HEAD COACH	 최영근 수석코치 COACH	 김한윤 코치 COACH	 박용호 코치 COACH	 김재성 코치 COACH	 김이섭 GK코치 GK COACH
 육태훈 전력분석관 PERFORMANCE ANALYST	 박준성 통역 INTERPRETER	 1 이태희 GOALKEEPER	 3 김광석 DEFENDER	 4 강민수 DEFENDER	 5 이명우 MIDFIELDER
 16 이동수 MIDFIELDER	 17 김준엽 DEFENDER	 18 여름 MIDFIELDER	 19 송시우 FORWARD	 20 델브리지 DEFENDER	 21 김동현 GOALKEEPER
 28 민경현 MIDFIELDER	 29 김유성 GOALKEEPER	 30 박창환 MIDFIELDER	 32 이주용 DEFENDER	 33 김성민 MIDFIELDER	 34 오재석 DEFENDER

INCHEON UNITED MATCH SCHEDULE

1R 02월 19일(토) 16:30	1 인천 : 수원	0 인천축구전용
2R 02월 26일(토) 14:00	1 인천 : 서울	1 인천축구전용
3R 03월 01일(화) 16:30	0 강원 : 인천	1 강릉종합
4R 03월 05일(토) 19:00	0 인천 : 포항	1 인천축구전용
5R 03월 13일(일) 14:00	1 인천 : 김천	0 인천축구전용
6R 03월 20일(일) 19:00	0 성남 : 인천	1 탄천종합
7R 04월 02일(토) 14:00	1 인천 : 울산	1 인천축구전용

8R 04월 05일(화) 19:30	1 대구 : 인천	2 DGB대구은행파크
9R 04월 10일(일) 16:30	2 인천 : 제주	2 인천축구전용
04월 27일(수) 19:00	1 인천 : 광주	6 인천축구전용
10R 05월 05일(목) 19:00	2 수원FC : 인천	2 수원종합
11R 05월 08일(일) 16:30	0 인천 : 전북	1 인천축구전용
12R 05월 14일(토) 19:00	2 울산 : 인천	2 울산문수
13R 05월 17일(화) 19:30	2 인천 : 대구	2 인천축구전용
14R 05월 21일(토) 18:00	2 포항 : 인천	0 스틸야드
15R 05월 29일(일) 16:30	1 인천 : 성남	0 인천축구전용

16R 06월 18일(토) 18:00	2 제주 : 인천	1 제주월드컵
17R 06월 22일(수) 19:30	4 인천 : 강원	1 인천축구전용
18R 06월 25일(토) 20:00	1 서울 : 인천	1 서울월드컵
19R 07월 03일(일) 19:30	0 수원 : 인천	0 수원월드컵
20R 07월 06일(수) 19:00	0 인천 : 수원FC	1 인천축구전용
21R 07월 09일(토) 19:00	2 전북 : 인천	2 전주월드컵
22R 07월 16일(토) 18:00	0 김천 : 인천	1 김천종합
25R 07월 30일(토) 20:00	3 성남 : 인천	1 탄천종합
26R 08월 03일(수) 19:00	1 인천 : 수원FC	1 인천축구전용
27R 08월 07일(일) 19:30	2 대구 : 인천	3 DGB대구은행파크
28R 08월 13일(토) 19:30	3 인천 : 전북	1 인천축구전용
24R 08월 20일(토) 18:00	1 포항 : 인천	1 스틸야드
23R 08월 27일(토) 20:00	2 인천 : 서울	0 인천축구전용
29R 09월 02일(금) 19:30	0 인천 : 강원	1 인천축구전용
30R 09월 06일(화) 19:00	0 제주 : 인천	1 제주월드컵
31R 09월 11일(일) 19:00	3 수원 : 인천	3 수원월드컵
32R 09월 14일(수) 19:00	0 인천 : 울산	0 인천축구전용
33R 09월 18일(일) 15:00	1 김천 : 인천	0 김천종합
34R 10월 01일(토) 16:30	인천 : 울산	인천축구전용
35R 10월 08일(토) 19:00	강원 : 인천	춘천송암
36R 10월 11일(화) 19:30	인천 : 제주	인천축구전용
37R 10월 16일(일) 19:00	인천 : 포항	인천축구전용
38R 10월 23일(일) 15:00	전북 : 인천	전주월드컵



vs ULSAN PREVIEW

세 번의 맞대결, 세 번의 무승부 울산전, 승부를 낼 시간

글 = 성의주 UTD기자 (sung.euju.shin@gmail.com)

MATCH RESULT

최근 5경기 맞대결

0 VS 0	2021/04/25	-
2 VS 3	2021/08/29	무고사 2골
1 VS 1	2022/04/02	무고사 골
2 VS 2	2022/05/14	무고사 골, 이용재 골
0 VS 0	2022/09/14	-

MATCH POINT

관전포인트

- 인천, 최근 울산 상대로 3경기 연속 무승부
- 인천, 최근 울산 상대로 3경기 연속 무패행진
- 인천, 최근 울산 상대로 11경기 무승 기록(2018년 9월 2일 3:2 승리)
- 인천, 울산 상대로 통산전적 13승 17무 26패

정규리그가 모두 끝나고 파이널 라운드 시작된다. 9년 만의 파이널 A 진출로 인천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으나 아직 최종 목표가 남아있다. 사상 첫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은 경기 하나하나를 결승전처럼 치러야 한다. 인천이 또 다른 가을의 기록을 위해 나선다.

파이널 라운드 첫 상대는 울산현대다. 공교롭게도 정규리그 마지막 홈경기 상대였던 울산과 빠르게 다시 만나게 됐다. 당시 인천은 울산을 만나 0-0 무승부를 거뒀다. 비록 승점 1점이었지만 울산의 공격진에게 한 점도 허용하지 않았던 단단한 수비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수비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시간이다.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울산의 공격력을 얼마나 잘 막아내는가가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엄원상, 레오나르도, 아마노 준과 여름 이적시장에서 합류한 마틴 아담, 베테랑의 이청용까지 더해져 울산이 위협적인 공격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직전 맞대결에서는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 오는 불부터 전략적으로 차단해 경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었다. 울산의 공격력을 막기 위해 조성한 감독이 어떤 전술을 들고나올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또한, 수비력에 비해 아쉬웠던 공격력에 대한 해법을 짧은 시간 내에 찾아냈을지도 주목해볼 부분 중 하나다.

이번 시즌 인천은 줄곧 선두를 지켰던 울산을 상대로 한 번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승리하지도 못했다. 이번 시즌뿐 아니라 인천은 울산에게 오래도록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11경기 연속 무승으로, 2018년 9월 2일 3-2 승리가 마지막이다. 인천은 기나긴 무승의 고리를 끊고 승리에 도전한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승리를 거뒀던 당시 프로 데뷔골이자 멀티골을 터트린 김보섭이 또 한 번 울산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즌 내내 한 번도 선두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울산이지만 시즌 초중반과 비교하면 최근의 흐름이 좋지 못하다. 현재까지 33경기 중 단 5번의 패배를 거뒀지만 그중 두 번이 최근 5경기에서 나왔다는 것이 그 증거다. 울산은 최근 침체된 분위기를 다시 살리기 위해 파이널 라운드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울산은 최근 몇 년간 매년 시즌 막판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우승을 코앞에서 놓쳐야 했다. 이번 시즌에는 절대 우승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나선 울산에 맞서기 위해 인천 역시 필사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



vs JEJU PREVIEW

'1승 1무 1패' 제주전, 팽팽한 상대전적의 승점 6점짜리 경기

글 = 성의주 UTD기자 (sung.euju.shin@gmail.com)

MATCH RESULT

최근 5경기 맞대결

4 VS 1	2021/07/31	김현 골, 송시우 골, 무고사 2골
1 VS 2	2021/09/11	델브리지 골
2 VS 2	2022/04/10	이명주 골, 무고사 골
1 VS 2	2022/06/18	김보섭 골
1 VS 0	2022/09/06	이강현 골

MATCH POINT

관전포인트

- 인천, 최근 제주 상대로 3경기만에 승리
- 인천, 최근 제주 상대로 6경기만에 무실점
- 인천, 최근 제주 상대로 5경기 연속 득점
- 인천, 제주 상대로 통산전적 14승 20무 18패

인천이 파이널 라운드에서 홈으로 불러들일 두 번째 상대는 제주유나이티드다. 파이널 라운드 시작을 앞둔 지금 인천과 제주의 승점 차이는 단 3점이다. 득점은 제주가 우위인 만큼 단 한 경기로도 순위가 뒤집힐 수 있다. 최대한 승점을 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모든 경기가 '승점 6점짜리 경기'지만 특히 제주와는 승점 차이가 가장 적은 상대인 만큼 반드시 승리를 가져와야 한다.

인천과 제주는 이번 시즌 세 번 만나 1승 1무 1패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직전 맞대결이었던 30라운드에서 인천은 이강현의 강렬한 프로 데뷔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팽팽한 상대전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이 인천에게는 분위기를 올려줄 좋은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앞선 두 번의 대결에서는 씁쓸한 결과를 냈다. 첫 맞대결이었던 지난 4월 9라운드에서는 경기 시작 2분 만에 실점하며 위기를 맞이한 후 역전까지는 성공했으나 강민수의 퇴장으로 위기를 맞았다. 남은 시간을 잘 버텨내는 듯했지만, 경기 종료 직전 주민규에게 실점을 허용하며 코앞에서 승리를 놓쳤다. 6월에 열린 두 번째 맞대결에서도 선제 실점 이후 동점까지 만들어냈으나 후반 42분에 실점하며 패배를 거뒀다. 두 번의 경기에서 볼 수 있듯 제주와의 경기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늘 경기 종료 직전이었다. 마지막까지 수비 집중력을 놓치지 않아야 승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

쉽지 않은 상대지만 최근 제주의 흐름이 좋지 못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제주는 최근 7경기에서 승리를 단 한 번밖에 거두지 못했다. 특히 강등권에 있는 수원삼성, 대구FC를 상대로도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며 아쉬움이 남는 경기를 치렀다. 인천 또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김천삼수를 상대로 0-1 패배하며 상승의 흐름은 가져가지 못했지만 홈으로 제주를 불러들이는 만큼 승리를 노려보고자 한다.

위험 대상 1순위는 역시 주민규다. 최근 경기 출전 시간이 줄어들고 있지만 현재 리그 득점 1위의 공격수를 무시할 수 없다. 더군다나 주민규는 올 시즌 인천과의 경기에서 3경기 모두 선발로 출장하며 총 3득점을 기록했다. 올 시즌뿐 아니라 제주의 주민규는 인천을 만날 때마다 종종 득점을 기록했던 만큼 그의 발끝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주민규뿐 아니라 제르소, 링 등 외국인 선수들과 안현범, 이창민, 진성욱, 김주공 등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들 모두가 경계대상이다.



vs POHANG PREVIEW

'이제는 이겨야 한다'

올 시즌 포항전 첫 승 노린다

글 = 성의주 UTD기자 (sung.euju.shin@gmail.com)

MATCH RESULT

최근 5경기 맞대결

1 VS 0	상대 자책골
2021/10/24	
0 VS 0	-
2021/11/28	
0 VS 1	-
2022/03/05	
0 VS 2	-
2022/05/21	
1 VS 1	송시우 골
2022/08/20	

MATCH POINT

관전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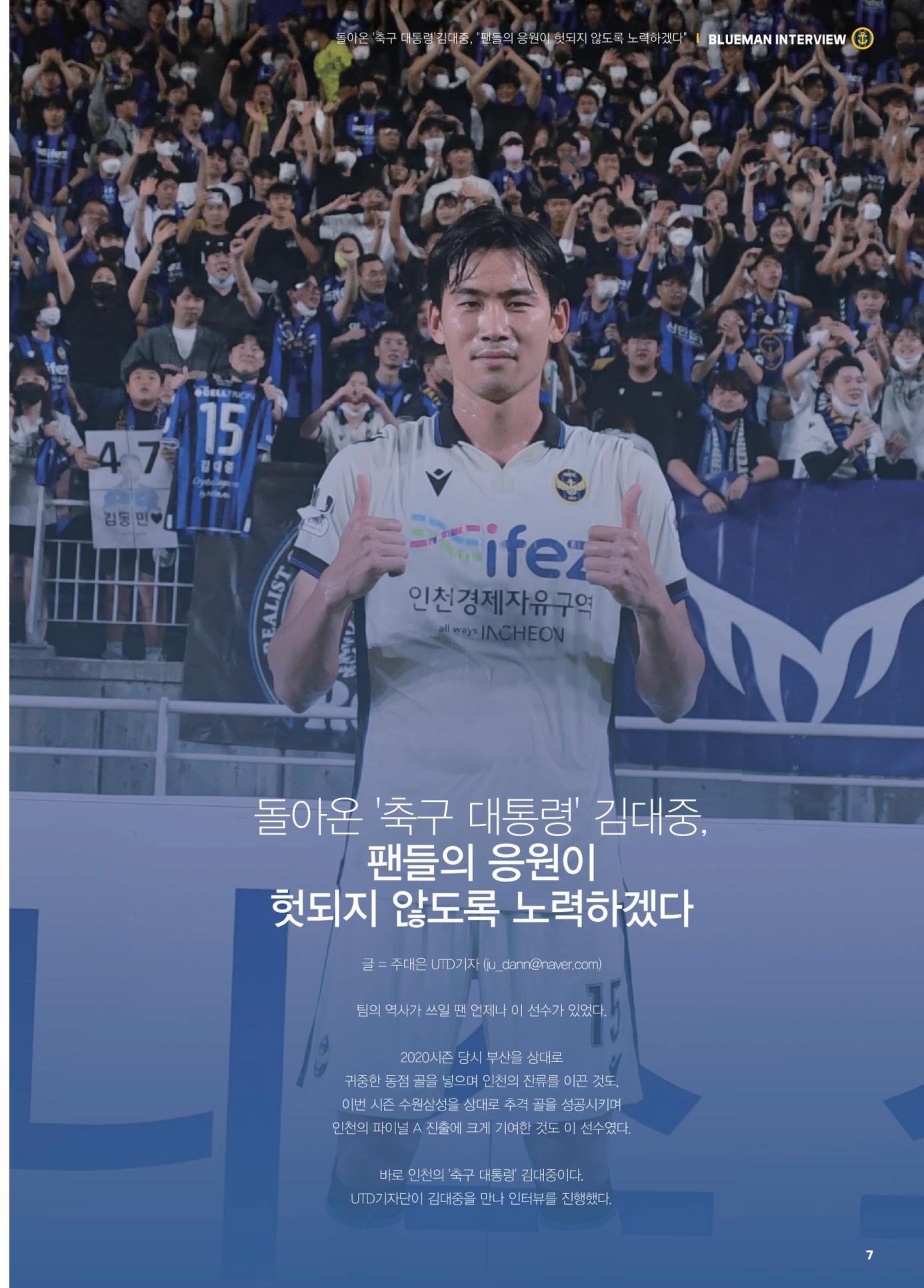
- 인천, 최근 포항 상대로 4경기 연속 무승
- 인천, 최근 포항 상대로 3경기만에 득점
- 인천, 최근 포항 상대로 3경기 연속 실점
- 인천, 포항 상대로 통산전적 15승 18무 25패

올 시즌 인천에게 가장 힘들었던 상대는 1위 울산도, 2위 전북도 아니었다. 포항스틸러스다. 인천은 올 시즌 포항에게 가장 적은 승점을 얻었다. 세 번의 맞대결에서 가져온 승점은 단 1점이다. 득점도 1점뿐이다. 인천은 이 어려운 상대와 이번 시즌 마지막 홈경기를 치른다.

포항은 이전부터 인천에게 까다로운 상대였다. 포항을 상대로 거둔 마지막 승점 3점은 지난 시즌 24라운드에서 거둔 1-0 승리였다. 이마저도 원정 경기로, 홈경기에서 마지막으로 거둔 포항전 승리는 2017시즌, 5년 전이다. 인천에게 어려운 상대인 것은 확실하지만 인천이 AFC 챔피언스리그에 가까워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상대 중 하나다. 순위 역시 인천의 바로 위인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 시즌 가장 많은 승점을 헌납한 상대인 만큼 파이널 라운드에서만은 승리를 거둬야 한다.

포항을 넘기 위해서는 수비수 그랜트를 넘어야 한다. 중앙 수비를 맡는 그랜트는 올 시즌 27경기에 나서며 포항 수비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다. 라운드 베스트11에도 7차례나 선정됐다. 그뿐만 아니라 인천의 이명주와 함께 올 시즌 K리그 최고의 미드필더로 꼽히는 신진호 역시 경계 대상으로 뽑힌다. 공격진 역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허용준을 비롯한 베테랑 임상협과 올 시즌 인천에게 멀티골을 기록했던 정재희 모두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포항의 가장 큰 무기는 사령탑이다. 올 시즌 K리그에서 인천의 조성한 감독과 함께 팬들에게 가장 높은 신임을 받는 또 한 명의 감독이 바로 포항의 김기동 감독이다. 상대에게 맞춘 전략과 K리그 최고로 꼽히는 선수 활용 능력, 전후반 전술을 과감하게 변경하는 유연성까지, 상대를 두렵게 만든다. 김기동 감독이 인천을 상대로 어떤 전술을 들고나올지, 인천은 그에 맞서 어떤 전술을 펼칠지 두 감독의 지략 대결 역시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돌아온 '축구 대통령' 김대중, 팬들의 응원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글 = 주대은 UTD기자 (ju_dann@naver.com)

팀의 역사가 쓰일 땐 언제나 이 선수가 있었다.

2020시즌 당시 부산을 상대로 귀중한 동점 골을 넣으며 인천의 잔류를 이끈 것도, 이번 시즌 수원삼성을 상대로 추격 골을 성공시키며 인천의 파이널 A 진출에 크게 기여한 것도 이 선수였다.

바로 인천의 '축구 대통령' 김대중이다. UTD기자단이 김대중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팀이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내가 언제 들어가고 얼마나 활약하고는 다음 문제**

인천의 이번 시즌 초반 흐름은 2003년 팀 창단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하지만 김대중은 조금 달랐다. 출전은 고사하고 명단에서도 제외되기 일쑤였다. "개인적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나보다 좋은 선수들도 많고, 팀 경기력도 좋다 보니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경기에 나서지 않는 선수가 자신을 증명할 방법은 많지 않다. 하지만 김대중은 포기하지 않고 칼을 갈았다. "우리 팀이 계속 이기는 것은 정말 좋았다. 팀이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프로라고 생각한다. 내가 언제 들어가고 얼마나 활약하고는 다음 문제이지 않나.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시즌을 겪다 보면 여러 상황이 일어나고 변화도 많이 생긴다. 경기를 못 뛰는 것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언제나 경기에 나설 수 있게 몸을 만들었다.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보여주자는 생각으로 뒤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다."

김대중이 시즌 초 출전하지 못한 이유는 단지 몸 상태만이 아니었다. 기존 포지션이던 중앙 수비수에서 공격수로 포지션을 완전히 변경하면서 적응 시간이 필요했다. "감독님 지시가 있었다. 작년에는 연습할 때 수비수도 하고 공격수도 봤다. 올해 시즌 시작하면서 감독님이 '올해는 수비수를 보지 말고 공격수로 계속 준비해라. 그래야 공격 연습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셨다."

"나도 비슷한 생각이었다. 공격, 수비 둘 다 하다가 포지션 감각이 떨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감독님의 조언 덕분에 올해는 공격수로 준비했다. 연습 경기도 공격수로 출전하면서 많이 경험하고 더 연습할 수 있었다. 자신감도 많이 얻었다."



**팀에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자책했다**

인내의 시간 끝에 김대중은 시즌 시작 후 약 5개월이 지나서야 경기에 나섰다. 김대중은 20라운드 수원FC와의 경기 0-0 상황 후반 막바지에 출전했지만, 팀은 후반 45분 결승 골을 내주며 패배했다. "그 당시엔 아주 힘들었다. 0-0 상황에 득점이라는 결과를 보여줘야 했는데 오히려 극장골을 내준 것 때문에 마음이 참 안 좋았다. 팀에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자책했다."

첫 출전 이후 9경기 만에 김대중은 다시 출전했다. 29라운드 강원FC를 상대로 한 경기였다. 하지만 김대중은 다시 한번 실패를 맛봤다. 교체 출전했지만 팀이 0-1로 패배한 것이다. "강원전에서 정말 활약하고 싶었다. 그때도 결과로 보여주지 못했다. 강원전 이후엔 감독님은 물론이고 팬들에게 정말 죄송했다. 믿고 써주시고 응원해주시는데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다."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출전했지만 결과를 내지 못하며 부담감이 쌓일 법도 했다. 그렇지만 김대중은 조금 달랐다. "사실 조금해지기도 했다. 그래도 머릿속으로 '항상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내가 득점했던 순간들은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다. 매 순간 쉬운 건 없었다. '할 수 있다'고 되새기며 준비했다."



**극장골 비결? 딱히 없다.
단지 투입되는 상상을 많이 한다.**

결국 김대중의 노력은 시즌 세 번째 출전 만에 결실을 맺었다. 바로 31라운드 수원삼성과 경기였다. "나는 보통 경기 끝나기 직전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원삼성과 경기에선 감독님이 이른 시간에 날 부르셨다. 감독님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초반에는 공중볼에 대한 경험보다는 경기 운영을 해라. 나중에 델브리지가 전방으로 올라갈 텐데 그때 공중볼 싸움을 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투입 전에 2-1 상황이었었는데 내가 투입되자마자 페널티킥으로 실점했다. 실점 이후 시간이 15분 정도 남았던 걸로 기억한다. 평소엔 내게 주어지는 시간을 고려하면 15분은 많은 시간이지 않나.(웃음) 평소엔 전술적으로 델브리지와 약속한 게 있었다."

"수원전 득점 상황에서 델브리지가 공을 잘 연결해줬다. 사실 공을 받을 때 내 시야에선 상대 골키퍼가 보이지 않아서 골키퍼가 나오는 줄 알았다. 골키퍼와 충돌할 수도 있었지만 공을 포기할 수 없었다. 머리로 밀었는데 그게 골로 연결됐다."

김대중은 프로 데뷔 이후 총 3골을 기록했다. 2016시즌 광주FC와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역전 골을 넣었고, 2020시즌 부산아이파크와 경기에선 동점골을 기록했다. 그리고 지난 수원삼성과 경기에서 추격골을 넣으며 팀의 파이널 진출에 기여했다. 인천에 득점이 필요한 순간이면 항상 김대중이 있었다.

"나도 내 골들이 신기하다. 나에게 득점이라는 임무를 맡겨주셔서 기회가 많이 생긴 것 같다. 내가 프로 데뷔 이후 3골밖에 못 넣었는데 그게 모두 극적이거나 그런지 유독 부각이 되는 것 같다.(웃음) 딱히 비결은 없고, 시뮬레이션을 많이 한다.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경기에 들어가면 우리 팀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우리가 지고 있다면, 경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건지 상상을 많이 한다."



**스포츠라이트에 대해 아쉬움은 없다.
팀을 위한 득점, 그 자체가 의미있다.**

그동안 김대중은 득점의 대부분이 동점 골, 추격 골인 탓에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다. 지난 수원삼성과 경기 이후에도 결승 골을 넣은 김민석 이 더 큰 주목을 받았다. "극적인 득점 이후 인터뷰를 한 번도 못 해봤다. 골을 넣고 나서 '이제 내 차례인가' 싶어도 인터뷰하지 못했다. (웃음)"

"데뷔 골 넣을 때는 세레머니를 했는데 그 이후엔 한 번도 못했다. 나도 시그니처 포즈를 하나 만들었다. 꼭 득점하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고 해서 아쉽지는 않다. 팀을 위한 득점, 그 자체가 의미 있지 않나."

한편 김대중은 팀에 큰 보탬이 되며 인천의 파이널 A 진출을 이끌었다. 하지만 시즌은 끝나지 않았다. 인천의 이번 시즌 목표는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우리 선수들은 항상 AFC 챔피언스리그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목표로 최대한 많이 출전하고 싶다. 여기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골만 더 넣고 싶다. 소박한 목표라고 할 수도 있지만 팀에 최대한 도움이 되고 싶다. 들어갈 때마다 최선을 다하겠다."

인터뷰 막바지에 김대중은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큰 도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파이널라운드 첫 경기, 첫 단추를 잘 끼워서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다. 경기장에서 많이 웃으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다. 항상 온 힘을 다한 응원에 감사한다. 그 응원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인천유나이티드의 2022 파이널 라운드 관전 포인트

글-박범근 UTD기자 (keu0617@naver.com)

K리그 파이널 라운드가 시작된다. 정규리그 33경기를 마친 K리그1 12개 팀은 이제 상위 6개 팀과 하위 6개 팀으로 나뉘어서 남은 5경기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시즌 인천이 소화할 파이널 라운드는 익숙했던 파이널 B가 아닌 파이널A다.

인천에게 파이널A는 낯선 곳이다. 인천이 상위 50% 순위로 정규리그를 마무리해 파이널 A에 오른 것은 2013년 이후 9년 만이다. 그동안 인천에게 파이널라운드는 강등과 잔류를 두고 싸웠던 곳이다. 그러나 올해 인천은 이미 파이널A 진출로 잔류를 확정 지어 놓았다. 그렇다면, AFC 챔피언스리그와 우승을 두고 경쟁하는 무대에서 인천은 2022시즌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인천의 2022 파이널 라운드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보았다.



포인트 1. 리그 우승 경쟁을 경험해보자

인천에게 우승은 아주 먼 개념이었다. 매년 파이널B에서 시즌을 마무리한 탓에 인천은 우승팀이 결정되는 장면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올 시즌 인천은 K리그1 우승 경쟁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

현재 인천은 승점 49점으로 4위를 기록 중이다. 선두 울산현대와는 승점 17점 차다. 인천이 파이널 라운드 5경기에서 전승을 하더라도, 울산을 넘을 수는 없다. 올 시즌 우승 경쟁은 승점 66점의 울산과 61점의 전북현대 간의 2파전이다.

우승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인천이 리그 우승 경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우승팀이 가려지는 파이널라운드에 인천은 울산과 전북을 한 차례씩 상대한다. 비록 인천이 그 2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더라도 인천은 리

그 우승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울산, 전북과의 대결을 통해 우승 경쟁의 결말을 인천이 바꿀 수는 있다. 인천은 2022 K리그1 우승 경쟁에 캐스팅 보트를 친 팀 중 하나다.

게다가 인천은 이번 시즌 최종 라운드에 전북을 상대한다. 지난 3년 동안 K리그1 우승팀은 시즌 최종전에 결정되었다. 물론, 1위와 2위 간의 승점 차이가 5점이기 때문에 38라운드 전에 우승팀이 결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북이 서서히 차이를 좁혀가고 있는 지금의 흐름이라면 올해도 마지막 경기에서 리그 우승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올해도 최종 라운드에 우승팀이 가려지는 상황이 된다면, 인천은 우승을 코앞에 두고 있는 전북을 38라운드에 그들의 홈에서 상대하게 된다. 인천이 전북의 리그 6연패를 저지하는 팀이 될 수 있을지 혹은 전북 우승 세리머니를 지켜보는 팀이 될지는 올해 인천이 파이널라운드에서 마주하게 될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포인트 2. 팀 통산 기록에 도전해보자

9년 만에 파이널 A에 오른 인천은 몇 가지 팀 통산 최고 기록을 경신할 기회를 잡았다. 인천은 파이널라운드 도입 이래 팀 역대 최고 순위 달성에 이미 성공했다. K리그가 스포릿 제도가 적용된 2012년 이후, 인천의 최고 성적은 2013년의 7위였다. 올 시즌 인천은 파이널A 진출로 최소 6위 이상의 성적을 확정했다. 또, 만약 인천이 5위 이상으로 이번 시즌을 마친다면, 인천은 2005년 통합 준우승 후 가장 좋은 성적을 내게 된다.

38경기 체제 한 시즌 최다 승점 기록도 가시권이다. 역대 인천의 시즌 최다 승점 기록은 2012년의 67점이다. 이 기록은 44경기를 치르고 세운 기

록이다. K리그1이 38경기 체제가 된 2013년 이후 인천의 한 시즌 최다 승점은 2015년의 51점이다. 현재 인천은 승점 47점을 기록 중이다. 5경기에서 승점 5점만 더 쌓는다면, 인천은 새로운 팀 승점 기록을 수립하게 된다.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도 인천이 도전해 볼 수 있는 부문이다. 인천의 한 시즌 최다 득점은 2018년에 기록한 55득점이다. 올해 인천은 41골을 득점했다. 4년 전 기록까지 14골 남았다. 5경기에서 경기당 3골씩 넣으면 경신할 수 있다. 그렇기는 하나 사실 현실성이 아주 높은 시나리오가 아니다.

그러나 팀 통산 한 시즌 최다 골득실은 인천이 노려볼 만한 기록이다. 인천의 역대 최다 골득실은 2005년의 +9다. 인천이 정규리그 우승, 통합 준우승을 했던 시즌이었다. 현재 인천의 골득실은 +6이다. 2005시즌과는 불과 3골 차다. 인천의 최다 골득실 기록을 2005년에서 2022년으로 바꿀 기회가 왔다.

최다 기록이 있다면, 최소도 있다. 인천은 올 시즌 리그에서 8패를 기록 중이다. 승강제 도입 후, 인천의 패배가 가장 적었던 해는 11번밖에 지지 않았던 2012년이다. 정규리그 동안 쌓은 인천의 저력을 파이널라운드에서도 발휘한다면, 충분히 경신할 수 있는 기록이다.

인천이 깨지 않았으면 하는 기록도 있다. 바로 한 시즌 최다 무승부다. 인천의 역대 한 시즌 최다 무승부 기록은 2017시즌에 나왔다. 당시 인천은 리그 38라운드 중 무려 18경기를 비겼다. 이는 승강제 도입 이후, 2016년의 수원삼성과 함께 K리그1 최다 무승부 기록이기도 하다. 올해 13번 무승부를 거둔 인천은 남은 5경기에서 전부 비기면 팀 역대 최다 무승부와 동률을 이룬다. 파이널 라운드에서 한 번도 지지 말아야 달성할 수 있는 기록이지만, 인천의 모두가 5경기 5무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바랄 것이다.



포인트 3. AFC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자

올해 파이널라운드에서 인천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바로 AFC 챔피언스리그(ACL) 진출이다. 인천은 창단 이래 한 번도 ACL에 나가본 적이 없다. 인천이 올해 ACL 진출에 성공한다면, 이는 팀 역사상 최초가 된다.

2023/24시즌 ACL 티켓은 2022시즌 K리그1 3위까지 주어진다. K리그1 3위 팀은 차기 시즌 ACL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현재 리그 3위는 승점 55점의 포항스틸러스다. 인천은 승점 6점 차로 4위에 올라있다. 인천이 남은 경기에서 포항을 역전해 3위에 오른다면, 인천은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무대에 나선다.

인천이 3위를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ACL에 나가는 방법은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1위 울산 혹은 2위 전북이 FA컵에서 우승하고, 인천이 리그 4위로 시즌을 마치는 것이다. 이 경우 리그 3위 팀이 ACL 조별리그에 직행하고, 원래 3위가 받아야 했던 ACL 플레이오프 티켓이 4위 팀에게 넘어간다. 따라서 인천이 다음 시즌 ACL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위 이내로 시즌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동안 인천은 파이널라운드에서 지키기 위한 싸움을 했다. 다음 시즌에도 지금과 같은 곳에서 경쟁하기 위해 뛰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2022년의 인천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시즌 마지막 일정에 나선다. 인천이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올라가고 있는 인천의 2022시즌 결말은 파이널라운드 5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뷔골이 극장골, '2년 차 막내 공격수' 김민석의 성장은 현재진행형

글 = 윤휘준 UTD기자 (smyoom63@naver.com)

31라운드 수원삼성 원정. 다소 생소한 이름의 공격수가 후반 40분 교체투입됐다. 올 시즌 첫 번째 출장. 자신에게 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21살 소년은 결국 경기 종료 직전 승부에 균형을 맞추는 동점골을 만들어 인천유나이티드가 9년 만에 파이널A 진출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UTD기자는 잊을 수 없는 9월을 보낸 프로 2년 차 유스 출신 공격수 김민석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쉬움이 컸던 '신인 김민석'의 프로 데뷔전

김민석은 2021년 인천유나이티드 U-18 인천 대건고를 졸업하고 곧바로 프로 무대에 입문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인의 장기인 스피드와 기술로 좋은 활약을 보여준 그는 함께했던 7명의 동기 중 유일하게 곧바로 파견의 유니폼을 입었다. 하지만 프로 무대는 쉽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을 제치고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의 김민석이 경기를 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김민석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긍정적인 배움의 자세로 임했다. 또 함께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성장의 원동력이라 충분한 동기부여로 삼았다. 그리고 2021년 최종전 38라운드 광주FC와의 원정경기에서 프로 데뷔의 기회를 받았다. 그는 선발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며 프로 무대에서의 첫발을 땀다.

그는 데뷔전에 대해 "사실 긴장을 안 하는 편인데 그날은 경기장을 가는 순간부터 정말 많이 긴장됐다. 인천유나이티드 팬, 그리고 K리그를 보는 팬들에게 내가 어떤 선수인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잘하려고 한 게 오히려 독이 됐던 것 같다. 정말 아쉬운 순간이었다"며 첫 경기를 회상했다.

이어 "그래도 정말 배운 것이 많았던 해였다. 형들과 함께 지내면서 형들의 운동 기술이나 볼을 어떻게 차는지 등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며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다. 프로 무대에 데뷔하는 게 첫 목표였는데 이를 수 있어 기뻐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었다. 개인적으로 훈련 때나 연

습 경기 때 묘한 긴장을 계속 해 신인의 패기와 같은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아쉬웠다.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없었던 시즌이었다"며 자신의 프로 첫 해를 돌아봤다.



한 뼉 더 성장한 '2년 차 김민석', 묵묵히 자신의 기회를 노리다

프로 데뷔의 해가 지나고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며 김민석은 또 다른 목표를 설정했다. 그는 "더 많은 경기를 출장하기 위해 작년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소박할 수 있겠지만 시즌 전, 개인적으로 다섯 경기를 뛰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게 목표였다. 또 내가 경기장에서 어떤 선수인지 보여주는 것도 목표 중 하나였다"며 시즌 전 마음가짐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어 "고등학생 때와 가장 달랐던 경기 템포와 같은 부분도 적응을 마쳤다. 또 첫 시즌에는 형들과 경합하며 힘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시즌이 끝나고도 계속해서 웨이트 운동을 하며 동계훈련에 임했다. 실제로 힘이 많이 붙은 것을 느꼈다(웃음)"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치열하고 냉정한 프로의 세계에서 21살 김민석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쉽지 않았다. 시즌 초반 무고사가 최고의 골 감각을 보여주며 인천의 상승세를 이끌었고 송시우, 이용재, 김보섭, 홍시후 등 공격수들도 버금가는 활약을 펼치며 인천이 시즌 초반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민석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며 자신이 뭘 프로 경기를 생각했다. 그는 "경기를 뛰지 못해 기분이 좋지 않은 티를 내기보다 팀이 연습 경기나 리그 경기를 할 때 특히 공격수들이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 많이 참고했다. 어떻게 볼을 받고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등을 주의 깊게 봤다. 마음가짐도 다시 새롭게 했다. 더 잘해야겠다기보다는 경기장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볼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는지 등 그라운드에서의 세부적인 움직임에 중점을 뒀다"며 그동안의 시간에 대해 설명했다.



찾아온 기회, 평생 잊을 수 없는 데뷔골을 기록한 순간

결국 정규 라운드 막바지. 31라운드 수원삼성 원정에서 시즌 첫 엔트리에 들었다. 조성환 감독은 시즌 막바지로 향할수록 주요 선수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고 힘든 리그 일정 속 컨디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그동안 출전을 기다려왔던 공격수 김민석에게 기회를 주며 그라운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조성환 감독은 1-3로 뒤지고 있던 후반 40분 김보섭을 빼고 김민석을 투입했다. 김민석은 "형들이나 감독, 코치님께서 엔트리에 들었을 때 '자신 있게 하라고 하셨다. 나도 몸을 풀 때부터 작년과는 다르게 긴장이 되지 않았다. 빨리 경기장에 들어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며 수원전을 회상했다.

결국 김민석은 조성환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다. 추가시간까지 10분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그는 경기장에 들어간 후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계속해서 슈팅을 시도하며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더니 마침내 경기 종료 직전 승부에 균형을 맞추는 동점골을 기록했다. 그는 "볼을 많이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지만 패배하기 싫었다. 그러나 두 점 차 뒤지고 있었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최전방(김대중이형과 델브리지 근처에서 세컨볼을 탄 후 기회를 가져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 부분에만 집중했다. 떨어지는 볼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니 운 좋게 골로 이어졌다. 정말 기뻐다"며 득점의 순간을 설명했다.

수원삼성전 김민석의 깜짝 활약에 조성환 감독은 32라운드 울산현대와의 경기에서도 선발 명단에 그의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이날 선발로 김민석은 그토록 기다려왔던 홈 데뷔전을 펼쳤다. 그는 "처음 홈에서 하는 경기라 기분이 묘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상상만 해왔던 홈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뛰는 내 모습이 현실로 이루어져 기뻐다. 그래서 더 열심히 경기 준비를 했다"며 데뷔전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어 "상대가 리그 1위 울산현대였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울산을 상대로 나의 장점인 솔로 플레이와 스피드가 어느 정도 통할지 궁금했고 경험을 쌓을 기회라고 생각해 잘하고 싶었다. 하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아시아를 향해, 모두가 노력 중...방심하지 않겠다"

김민석의 극장 동점골로 9년 만에 파이널A 행을 확정 지은 인천유나이티드. 첫 번째 목표는 성공했지만 아직 배가 고프다. 이제는 인천유나이티드 구성원 모두 두 번째 목표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김민석은 "올 시즌을 시작하며 두 가지 목표가 파이널 A와 AFC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는 것이었다. 모두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컸고 시즌 첫 훈련 때부터 다들 진지하게 임했다. 또 팀 분위기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 베테랑 형들께서 파이팅과 격려를 해주시며 선수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셨다. 시즌 막바지인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여전히 목표가 있고, 선수들은 두 번째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뛰고 있다"며 현재 인천의 분위기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피지컬적인 부분과 함께 경기 중 볼 소유 능력과 여유를 가지고 볼을 찰 수 있도록 경기 운영 부분도 여전히 개선해야 한다. 휴식기 동안 이 부분에 집중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목표는 확고했다. 5위 제주와의 격차를 벌리고 3위를 쫓아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가까워지는 것이었다. "1차 목표를 이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팀원 모두가 고대했던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해 다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몇 경기 더 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완해 경기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뛰게 된다면 팀이 이길 수 있는 플레이를 할 것이고, 팀에 도움이 되는 플레이를 하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시즌 전 설정했던 목표 5경기 출전을 이루고 싶다"며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인터뷰를 마치고 팬들에게도 잊지 않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민석은 "항상 멋진 응원으로 인천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선수들도 팬들에게 받는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매일 많은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있다. 남은 다섯 경기, 인천답게 경기 종료 전까지 모든 것을 쏟아내며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IUFC BLUE MARKET



블루마켓 매장 위치
인천축구전용경기장
GATE-WG7 옆

운영 시간
경기 시작 2시간 30분 전
~ 경기 종료 후 30분
※ 경기 중에는 매장 재정비를 위해
운영하지 않습니다.
(하프타임 매장 이용 가능)

www.incheonutdmarket.com

온라인 블루마켓은 365일 OPEN

@032company

@IUFC 블루마켓



IUFC TV

2022시즌 인천유나이티드
직관의 감동을 계속 느끼고 싶다면?

**지금 인천유나이티드
공식 유튜브 / 네이버TV
채널을 구독하세요!**

인천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YouTube

NAVER TV

인천유나이티드 |

